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315>

JCCT 2022-9-39

미래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에서 정의의 문제 : 전통 정의론으로 보는 미래 인간론

The Problem of Justice in Future Post/Trans-Humanism : Seeing the Future Anthropology through Traditional Theory of Justice

이관표*

LEE, Kan-Pyo*

요약 본 연구는 인간을 다른 생명체와 동일한 차원에서 바라보는 인간주의 이후 포스트휴머니즘의 흐름과 더불어, 그 안에 속하지만 정반대로 과학기술을 통한 증강인간을 꿈꾸며 절대화를 피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그 이후 본 연구는 기존 정의론이 이 두 가지 양극단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정의론과 관련하여 우리가 선택한 길잡이는 마이클 샌델이며, 이러한 논의 안으로 미래의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의 문제를 통과시켜봄으로써 과연 전통 정의론의 입장에서 미래 인간론의 흐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제안하게 된다.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과 그로 인해 나타날 다양한 사건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연적인 상황과 더불어 이것은 기존의 정의론을 통과하여 타당한 것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논의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어 : 미래인간론, 포스트휴머니즘, 트랜스휴머니즘, 정의론, R. 브라이도티, M. 샌델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deal with the flow of posthumanism after humanism, which views humans from the same dimension as other living things, and the problem of transhumanism, which originated from it, but on the contrary, dreams of augmented humans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After that,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how the modern theory of justice can evaluate the situation about these two extremes. In particular, the guide we have chosen in relation to the theory of justice, is Michael Sandel, and by passing the problem of future post/transhumanism into this discussion, we propose how we can evaluate the flow of future anthropology from the standpoint of the traditional theory of justice. Post/transhumanism and its various events are approaching as our inevitable fate. However, along with this inevitable situation, many discussions are still needed in order to pass the theory of justice and to be accepted as valid.

Key words : Future-Anthropology, Posthumanism, Transhumanism, Theory of Justice, R. Braidotii, M. Sandel

*정희원,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8월 16일, 수정완료일: 2022년 8월 28일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9일

Received: August 16, 2022 / Revised: August 28, 2022

Accepted: September 9, 2022

*Corresponding Author: KanLee@hansei.ac.kr
Dept. of Socialwelfare, Hansei Univ, Korea

I. 서론

본 글은 현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곧 가까운 미래 시기에 주도적으로 직면하게 될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의 문제와 전통적 정의론의 관계를 다룬다.

분명 인류는 새로운 시대 및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근대 휴머니즘과 더불어 포스트모던의 안티휴머니즘을 넘어 이제 인류는 새로운 인류와 생명의 탄생을 예측하고 시행하기 시작한 전적으로 다른 ‘포스트’의 시대에 진입했다. 이러한 포스트의 시작은 이미 인간 자신에 대한 규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제 인류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특수함을 다양한 이유를 통해 포기하거나 거부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노화와 죽음을 극복한 증강된 인간이 되거나 자신의 고유한 육체를 대신하여 그 빈자리를 과학기술로 대체하려 한다. 현대의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높은 곳으로 극단적으로 이동시키며 철저히 변경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양극단의 상황, 즉 인간을 다른 생명체와 동일한 차원에서 바라보는 인간주의 이후 포스트휴머니즘의 흐름과 더불어, 그 안에 속하지만 정반대로 과학기술을 통한 증강인간을 꿈꾸며 절대화를 꾀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며, 나아가 기존 정의론이 이 두 가지 양극단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정의론과 관련하여 우리가 선택한 길잡이는 샌델(Michael Sandel)이며, 우리는 그가 정의에 대해 제시한 미덕(Virtue) 중심의 정의, 경제적 번영(Welfare)의 극대화로서의 정의, 그리고 자유와 연관된 정의론(자유주의)을 고찰하게 된다.[3] 그리고 이러한 샌델의 논의 안으로 미래의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의 문제를 통과시켜봄으로써 과연 전통 정의론의 입장에서 미래 인간론의 흐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포스트휴머니즘과 거기에서 논의되는 인간의 위치를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다.[2] 3장에서는 트랜스휴머니즘과 거기에서 논의되는 인간의 위치를 다양한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기존 정의론 세 가지를 공동체주의, 공리주의, 그리고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이것들을 통해 포스트휴머니즘과 트랜스휴머니즘의 상황을 평가한다.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할 결론은 다음과 같다.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과 그로 인해 나타날 다양한 사건들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에 나타나 우리의 사상적 배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의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상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서 끊임없이 미래적 인간론을 숙고하며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I. 포스트휴머니즘과 인간의 위치

포스트휴머니즘이란 모더니즘의 휴머니즘 및 포스트모더니즘의 안티휴머니즘 모두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간 이해를 요구하는 흐름이며, 큰 범위에 맞게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우리는 포스트휴머니즘 내 인간의 위치를 특별히 브라이도티에게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녀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그녀가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인 들뢰즈를 전공함과 동시에 그 이후 다양한 논의를 통해 거기에 대해 페미니즘 상황을 부과하여 포스트휴머니즘을 정립하기 때문이다.

이른 시기부터 포스트휴머니즘의 도래를 예측하고 연구해왔던 브라이도티는 인간 및 모든 생명체에 대한 대립 및 전통적 이원론 대립체계의 철폐로부터 자신의 논의를 시작한다. 이러한 차별의 철폐는 권력관계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가져왔던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모든 존재가 각각 주체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이러한 주체의 자격은 물체적 주체라는 사실로 발전된다.

여기서 말하는 물체적 주체는 유목적 주체로서 들뢰즈에 따르면 스스로 분열하지만, 동시에 그 분열의 사건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생성시킬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어디에도 고착되지 않는 유목적 존재이다.[2] 인간은 오히려 이러한 모든 물질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위치의 하락은 결국 인간과 다른 것들의 차이를 포함한 모든 차이를 무화시킴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무화시키고 진정한 페미니즘적 평등을 획득하려는 정치적 전략을 만족시킨다.

페미니즘적 전략으로 인간과 다른 존재자들 사이 동일성을 주장하던 브라이도티는 2013년에 이르러 미래적

인간론으로서 포스트휴머니즘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녀에 따르면, 포스트휴머니즘은 휴머니즘과 안티휴머니즘 모두의 극복과 함께 시작된다.[2] 오히려 그녀는 포스트휴머니즘 내 인간에 대한 논의를 휴머니즘이나 안티휴머니즘 보다는, 그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모순점들을 횡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포스트휴먼의 가능조건으로서의 곤경 및 현실진단을 자신의 시작으로 삼는다. 왜냐하면 휴머니즘이 타생명을 기술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과 동시에 안티휴머니즘 역시 자칫 그들이 가진 욕구에 따라 인간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으로 분출될 수도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단으로부터 이제 기술과학의 발달 및 인간 중심주의를 탈출하는 거대한 담론의 형성시기에 브라이도티는 인간과 다른 존재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전적인 전복과 전환을 제시하고자 시도한다.[1]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은 기존의 이해와 다르게 생명 및 물질을 새롭게 이해하고 예측하며 가정하는 것이다. 인간, 생명, 물질 사이의 경계선을 훌쩍리면서 와해시키며, 모든 생명과 물질까지도 자기 자신을 조직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생성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생성론 안에서 모든 인간, 모든 생명, 모든 물질은 그 어떠한 경계의 막힘 없이 서로가 되며 서로와 융합되어 간다. 융합은 단순한 생각의 혼합을 넘어 육체적, 물질적 혼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포스트휴머니즘의 기본정신이 된다.

특별히 이를 위해 브라이도티는 ‘되기’를 주장한다. 인간은 생성론 안에서 동물의 사건에 참여하는 ‘동물-되기(Becoming-animal)’, 전체 지구 및 세계에 참여하는 ‘지구-되기(Becoming-world)’, 그리고 스스로를 기계와 혼용하는 사건으로서의 ‘기계-되기(Becoming-machine)’를 받아들이고, 또한 이러한 되기의 사건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이자 사건이 되기를 요구받는다.

첫째, 동물-되기는 동물의 복잡성을 논하는 것이며, 동시에 동물이 인간과 다른 어떤 타자가 아니라 근접성을 지니고 있다는 통찰이다. 그럼으로써 그녀는 인간이 동물과 혼종과 변화의 공생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두 번째 지구-되기는 지구와의 관계를 재구성하라는 요구이다. 자기 생성을 가능하다고 여기는 ‘생기론적 유물론’에 의지하여 인간중심을 벗어난 지구중심적 사유의

주체성을 발전시켜야 한다[1]. 인간은 지구와 인간 사이의 일원론적 존재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일원론적 존재론 안에서 인간과 지구 사이의 경계는 무너지며, 그 사이의 횡단을 통해 새로운 관계성을 모색하고, 그 이후 이것은 생태계 및 환경위기의 문제로 직결되어 적용된다. 세 번째 기계-되기는 현재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전히 과정 중에 있는 4차산업혁명, 그리고 그것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사상인 트랜스휴머니즘과 연결된다. 기계는 자기생성을 하는 우리의 일부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기술을 매개체로 하여 인간 아닌 다른 많은 타자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융합되어 기존의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주체로 탄생되어야 한다.

III.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의 위치

앞서 언급했던 사항 중 기계-되기와 관련하여 포스트휴머니즘 내의 운동은 이제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이라는 한 영역으로 진입해 들어간다.

트랜스휴머니즘이란 ‘Trans’와 ‘Humanism’의 합성어이고, 여기서, Trans는 ‘넘어서는 것’, ‘지나가는 것’, ‘극복하는 것’을 지칭한다. 한 마디로 인간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 개념 트랜스휴머니즘의 사용은 우선 헉슬리(J. Huxley)의 1957년에 나온 책, 『새 포도주를 위한 새부대』에 결정적으로 각인되어 있다.”[5] 그 이후 1998년 닉 보스트롬(Nick Bostrom)과 데이비드 피어스(David Pearce) 등의 선언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활동이 시작된다.

물론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은 포스트휴머니즘과 트랜스휴머니즘이 동일성과 차이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엄밀히 말해 포스트휴머니즘이 먼저 발생하였고 그 흐름으로부터 트랜스휴머니즘이 발생하였다. 단적으로 말해, 포스트휴머니즘은 차이와 차별의 극복인데 비해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인간 증강 운동이다.[4]

좁은 의미로, 트랜스휴머니즘과 그것의 실행논의는 최신의 철학적 사조이자, 일종의 유사-종교적 지식 운동이라 말할 수 있다.[4] 이제 인간은 현대와 미래에 우리의 삶을 책임질 과학기술을 사용하여 노화를 없애고, 생명을 최대한 연장하며, 또한 이를 넘어 영원한 생명까지 획득하려고 시도한다.

사실 현대철학자 니체의 강화론은 이것의 배경이자 출발점이다.[5] 미래 인간이 되어야 할 그 모범을 위버멘쉬로 제시한 니체를 받아들여 이의 실현을 현대에 발전하게 된 과학과 연합하여, 그의 도움으로 새 방법론을 적용해간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인간은 과학의 현대적 작업들을 사용하여 그가 가지고 태어난 유한한 몸과 그로 인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점들을 극복해야 한다.

현대에 인간육체의 제한을 넘어서고 영원한 생명을 욕구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슈퍼맨 되기를 전제한다.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기에 제한적 삶을 살며 결국 죽는다. 하지만, 그 몸이 기계로 바뀐다면, 그것도 서서히 필요에 따라 기계부품을 대체하게 된다면, 이제 인류는 자신의 한계나 죽음을 넘어서게 된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 중에 최고의 핵심 키워드인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바꿈과 동시에 인간으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한다.[6] AI가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우며, 우리를 죽지 않는 미래에 이끌 수 있다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인간은 뇌를 새롭게 만들어 거기에 기억 및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그만이다.[4] 물론 여기서 인간은 자신의 기술 및 기계로의 변형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기꺼이 직면한다. 영생을 욕망하는 인간은 전혀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포스트휴머니즘 안에서 다른 존재자들과 정확히 동일한 위치로 격화된 인간은 동시에 영생을 당연하게 불러들이려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욕망을 통해 절대적 존재로 격상되는 당혹감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존의 정의론은 어떠한 평가를 제시할 수 있는가? 다음의 논의는 바로 여기에 대한 것이다.

IV. 정의의 사상사적 규정으로 보는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

앞서 우리는 포스트휴머니즘과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두 가지 미래적 인간론을 살펴보았고, 이제 이것을 전통적 정의론에 맞추어 평가해보기로 한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 우리는 먼저 포스트휴머니즘과 트랜스휴머니즘이 각각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 이해를 기존

정의론의 기준 안에서 평가하고 이를 통해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의 문제를 지적해보기로 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의 인간론은 인간과 다른 생명 및 물질들과의 완벽한 동일화를 주장한다. 이와 동시에 트랜스휴머니즘의 인간론은 앞서 언급한 기계-되기의 실행을 통해 그 어떤 생명과 물질들보다 더욱 강한 증강 인간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래의 이중적 인간론은 과연 정의로운가?

1. 미덕중심의 정의론

우리는 정의론을 살펴보기 위해 선텔의 기준을 차용하기로 하며, 선텔은 먼저 인류의 대표적 정의론 중 하나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덕중심 정의론을 제시한다. 미덕이란 다양한 규정이 가능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내면 혹은 가능성과 연관된 개념이다.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한다. [...] 그리고 정의는 영예를 안겨주는 것이다.”[3] 정의란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주는 걸 의미한다. 다시 말해,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며, 이런 의미에서 정의를 결정하는 일차적 조건은 어떤 것에 대한 탁월함, 즉 미덕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한다. 그리고 미덕중심의 정의론은 포스트휴머니즘의 인간론을 거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과 다른 존재자와의 차이를 허물고 인간의 위치를 격하시키는 포스트휴머니즘적 논의는 결코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덕, 즉 탁월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탁월함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트랜스휴머니즘의 인간론 역시 거절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트랜스휴머니즘의 증강인간 및 영생이 철저히 개인적 이익에만 함몰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가장 중요한 목표와 관련하여 트랜스휴머니즘은 그 기술의 독점과 자본성 때문에 비판받게 된다.

2. 경제적 번영 중심의 정의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을 통해 분배의 정의를 판단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경제적 번영의 극대화를 주장하는 사조가 정의규정을 위한 또 다른 대표적 흐름이다. 이는 선텔에 의하면 공리주의로 대변되며, 그 대표적 학자는 소위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했던 벤담이다. “그는 모든 도덕적 주장은 행복의 극대화라는 전제

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 정의란 공리가 가장 극대화에 이르게 만드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다.

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의 정치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이 공리주의는 아마도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 논의에 대해 가장 분명한 지지를 보낼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체 및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켜주고 또한 많은 편의를 제공할 때, 공동체에 속한 더 많은 다수에게 더 많은 혜택과 행복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3. 자유중심의 정의론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정의규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나왔던 것이 바로 자유를 중심으로 정의를 바라보는 입장이며, 이것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람은 칸트와 롤스이다.

1) 칸트의 경우

칸트가 주장하는 정의에 대한 논의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에 존중받아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둘째, 인간은 도덕범주를 통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자율성을 가지고 따르는 그런 존재이다. 나의 의지의 준칙을 보편화하라는 것과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다루라는 두 가지 정언명령 모두가 바로 이러한 자율성을 강조한 칸트의 정의론을 구성하고 있다.[3]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은 앞서 언급한 칸트의 정의의 제안에 부합할 때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칸트의 경우 정의의 조건은 인간이 자체로 독특한 존엄함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칸트의 전제와 다르게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의 존엄성과 독특성을 다른 존재자들에 비해 뛰어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칸트의 정의규정 중 결정적인 두 가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와 “모든 행위가 보편적 격률에 해당할 수 있는가”를 포스트휴머니즘은 통과할 수 없다. 또한 트랜스휴머니즘 역시 인간을 기계와 혼합시킴으로써 증강시키는 방식에 있어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사항 및 모든 행위가 보편적 격률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위반한다.

2) 롤스의 경우

자유를 중심으로 정의를 논하는 대표적인 학자로서 미국 정치 철학자 존 롤스 역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가 정의를 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자유의 기본근거인 개인의 권리이고 나아가 그것을 지킨 상태에서 어떻게 평등을 가능하게 만들까 하는 것이다.[3] 롤스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사회계약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살아가고 있다. 국가, 사회, 경제, 문화 등이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암묵적인 원초적 상태에서 평등하게 가상적 합의에 도달했기에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의 역시 그렇게 합의되어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롤스는 이 계약으로부터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이 드러난다고 믿는다.[3] 그것은 바로 첫째 모든 기본적인 자유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것에 이어 두 번째 원칙은 이 자유와 평등을 제한하는 사항을 동반하여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최소수혜자에게 불평등한 사회적, 경제적 배분을 함으로써 기본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소위 차등의 원칙이라고 말한다.

롤스의 자유의 평등과 차등의 원칙으로서의 정의론은 칸트와 마찬가지로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을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은 오직 인간만을 위한 자유의 평등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이 시도하는 인간변형의 프로젝트는 인간만의 자유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인간 자유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포스트휴머니즘의 일원론적 평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것은 차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왜냐하면 포스트휴머니즘이 주장하는 평등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를 요구하며, 동시에 트랜스휴머니즘이 주장하는 육체의 증강과 영생의 기회는 결코 차등의 원칙을 통해 가난한 계층에게 무조건 제공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이다.

롤스는 인간의 존엄성과 독특성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논의를 개선하는 반면,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의 존엄성과 독특성이 흐릿해지는 지점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시작하고자 한다. 자유주의적 차원에서의 정의와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의 논의는 상호 출발점과 전제가 다르며, 따라서 롤스의 자유의 평등과 차등의 원칙은 결코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 현상을 인정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을 다른 생명체와 동일한 차원에서 바라보는 인간주의 이후 포스트휴머니즘과 더불어, 과학기술을 통한 증강 인간을 꿈꾸며 인간의 절대화를 피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을 기존 정의론 안에서 평가해보았다. 특별히 정의론과 관련하여 우리는 미덕 중심의 공동체주의적 정의, 경제적 번영 중심의 공리주의적 정의, 그리고 자유 중심의 자유주의적 정의를 짧게 살펴보고, 그 안으로 미래의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의 문제를 통과시켜 보았다.

먼저 미덕중심의 정의론은 포스트휴머니즘의 인간론을 거절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이유는 인간과 다른 존재자와의 차이를 허무려는 시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체주의적 목표, 즉 인간공동체 유지의 목표로부터 벗어난다는 사실 안에 놓여 있었다. 또한, 트랜스휴머니즘 역시 거절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트랜스휴머니즘의 증강인간 및 영생이 철저히 개인적 이익에만 함몰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공동체를 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공리주의 정의론은 이와 반대로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 논의에 대해 가장 분명한 지지를 보낼 것으로 평가되었다. 생명체 및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켜주고 또한 많은 편의를 제공할 때, 공동체에 속한 더 많은 다수에게 더 많은 혜택과 행복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며, 이는 공동체 전체가 누릴 수 있는 물질적 행복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자유주의적 정의론은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에 가장 강력한 반대를 제시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먼저 칸트의 경우,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이 인간의 존엄성과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의 무화를 주장한다는 점, 그리고 결국 과학기술과의 융합 안에서 인간이 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롤스에게서도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만의 자유의 평등과 차등의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트랜스휴머니즘의 육체의 증강 및 변형이 결코 차등의 원칙을 통해 모두에게 제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 거절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앞서의 정의론 세 가지 모두는 여전히 휴머니즘의 차원 안에서 자신들의 논의를 전개하기 때문에 휴머니즘 및 안티휴머니즘을 모두 극복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및 기계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하는 미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사상 및 그에 따르는 상황은 미래의 그 어떤 시점에, 그 어떤 전제를 가지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정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때에만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과 그로 인해 나타날 다양한 사건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연적인 상황과 더불어 이것은 기존의 정의론을 통과하여 타당한 것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아직 먼 길을 돌아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처럼 모순적 상황에서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은 이러한 모순이 우리 사회에 극악한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숙고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미래 인간의 의무라는 사실이다.

References

- [1] Braidotti, Rosi. *The Posthuman*. Polity Press. 2015.
- [2] Lee, Kyoung-Ran. *Rosi Braidotti, Posthuman*. Communication-Books. 2017.
- [3] Sandel, J. Michael.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Farrar, Straus and Giroux. 2009.
- [4] Loh, Janina. *Trans-und Posthumanismus, zur Einführung*. trans by Cho, Chang-Oh. Busan Univ. Press. 2021.
- [5] Sorgner, Stefan L.. *Transhumanismus: Die Gefährlichste Idee der Welt!?*. Herder Verlag. 2016.
- [6] Kim, Ju-eun.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Human Societ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2, pp.177-182, May 31, 2019.